

최고 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 포럼

8월 주제강연자료

- 주제 :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연사 : 유흥준 교수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다시, 匠人精神을 말한다

유 홍 준

匠人精神 VS 作家精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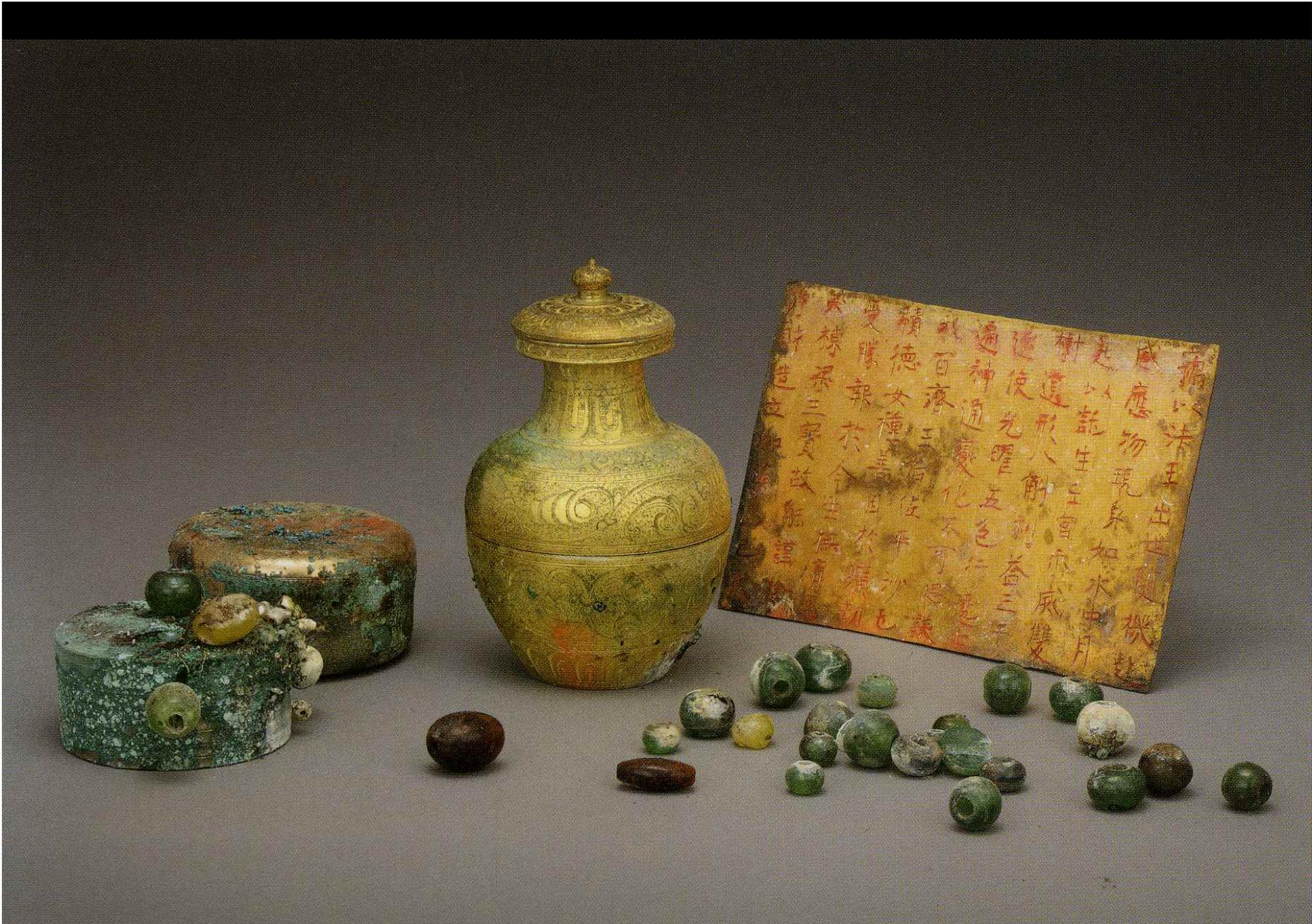
1. 장인정신이 구현된 명작들

예술과 기술이 분리되지 않은 시절

- 백제 용봉향로
- 사리함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
높이 62.5cm, 지름 19.0cm, 국보 제 287호, 국립부여박물관



미륵사터 서탑 사리 갖춤



사리외호, 높이 13.0cm



왕흥사터 사리갓춤 (사리합 높이 10.3cm)



금제 태환식 귀걸이, 신라, 길이 8.7cm, 국보 제 90호, 국립중앙박물관

2. 최고의 명작은 장인이 존중되던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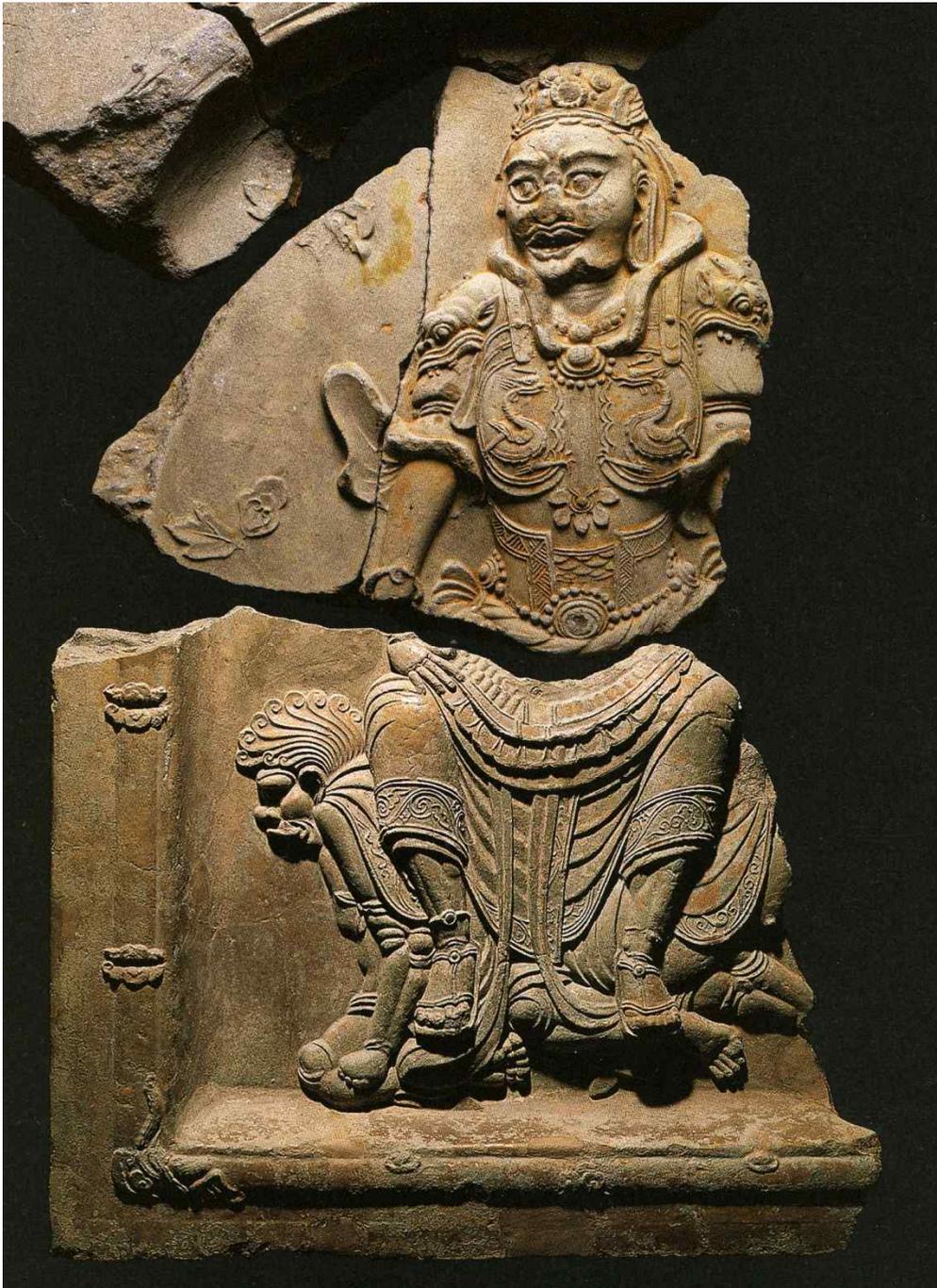
다리(多利), 아비지(阿非知), 아사달, 양지(良志)법사, 와박사(瓦博士), 주종박사(鑄鐘博士)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양 옆의 총 1037자의 명문
“한림랑(翰林郎) 김필중(金弼重)이 왕명을 받들어 짓다”

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 8명의 이름과 관직 그리고
주종기술자 4명의 직책과 이름을 밝혀놓고 있다.

주종대박사(鑄鐘大博士) 나마(奈麻) 박종일(朴從鎰)
주종차박사(鑄鐘次博士) 나마(奈麻) 박빈나(朴賓奈)
나마(奈麻) 박한미(朴韓味)
대사(大舍) 박부부(朴負缶)



은제팔찌(다리) ,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지름 8.0cm, 두께 1.0cm, 국보 제 160호, 국립공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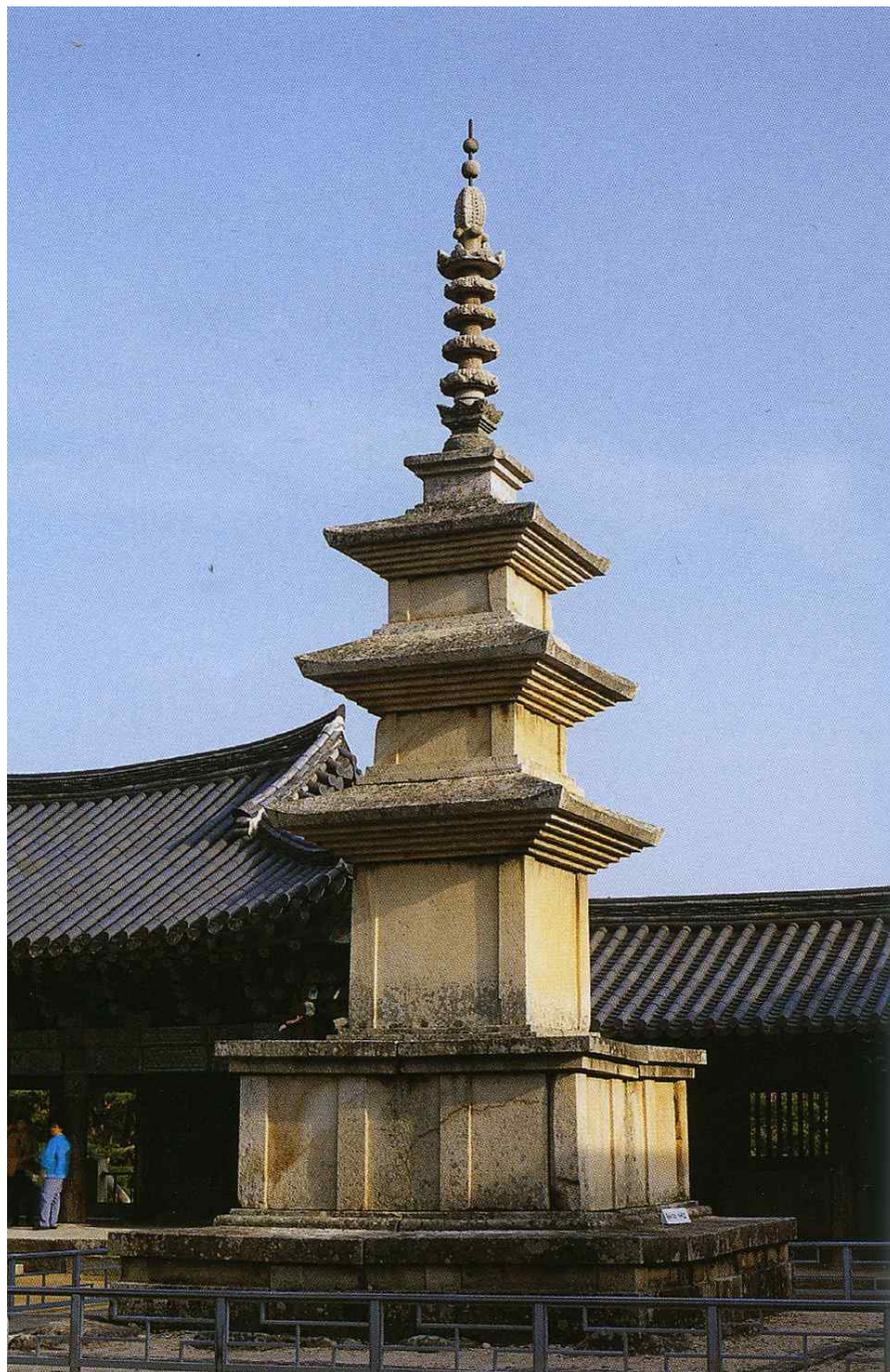
경주 사천왕사터 전돌(전 양지), 통일신라



경주 안압지 보상화무늬 전돌(전 양지)



경주 황룡사지 구층목탑 (아비지)



석가탑(아사달), 8세기 중엽, 국보 제 21호

3. 장인적 수련과 연찬

- guild / workshop/ master /journeyman/ apprentice/(패왕별희)
Masterpiece
- 알브레히트 뒤러 [1471.5.21 ~ 1528.4.6.]의 자화상들
- 추사의 고백



Housebook Master, Mercury, 15세기



뒤러 , <자화상>, 드라이 포인트, 13살 때 모습, 1484년

뒤러, <자화상>, Journeyman 시절, 22살, 1493년



뒤러, 자화상, Master 된 이후, 26살, 1498년



뒤러, Michael Wolgemut 초상, 44살, 1516년

완당의 장인적 수련과 연찬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밀창 냈고, 붓 일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아무리 구천구백구십구분까지 이르렀다 해도 나머지 일분만은 원만하게 성취하기 어렵다. 이 마지막 일분은 웬만한 인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인력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전집 권6, 석파 난권에 쓰다)

4. 종교하는 마음

- Rogier van der Weyden(1400경-1464) <St. Luke drawing the Virgin>
St. Luke(성 누가)는 가톨릭의 후원 성인(Patron Saint)
- Mercury = Hermes; craftman의 상징
- 성덕대왕신종



Rogier van der Weyden,
St. Luke painting the virgin and the child

성덕대왕신종, 통일신라, 높이 333cm, 국보 제 29호



“무릇 심오한 진리는 가시적인 형상
이외의 것도 포함하나니 ...
(부처님께서는) 때와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유하여 진리를 알게 하듯이
신종(神鐘)을 달아
진리의 원음(圓音)을 듣게 하셨다.”

5. 장인정신의 외형적 특징은 Detail이 아름답다는 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점, 거의 본능적이다.’

- 콰이강의 다리/왕희지와 왕헌지/미불과 대승이 소 그림
- “God is in the details” -Mis van der Rohe
- 불국사 석축/고려사경/고려불화/ 조선시대 초상화/고려청자 매병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청자 앞 무늬 매병, 고려 12세기, 높이 27.6cm, 보물 제 3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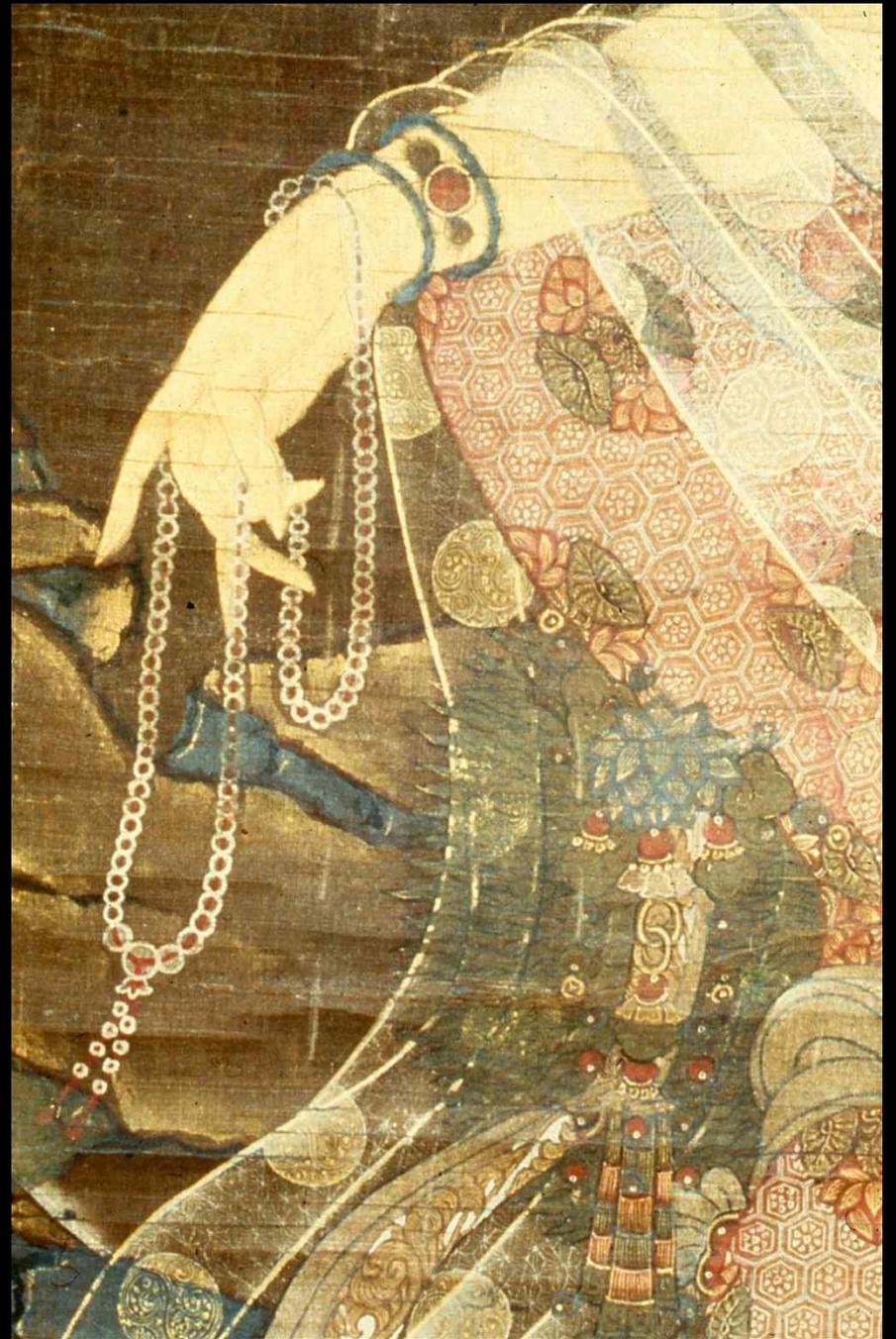
불국사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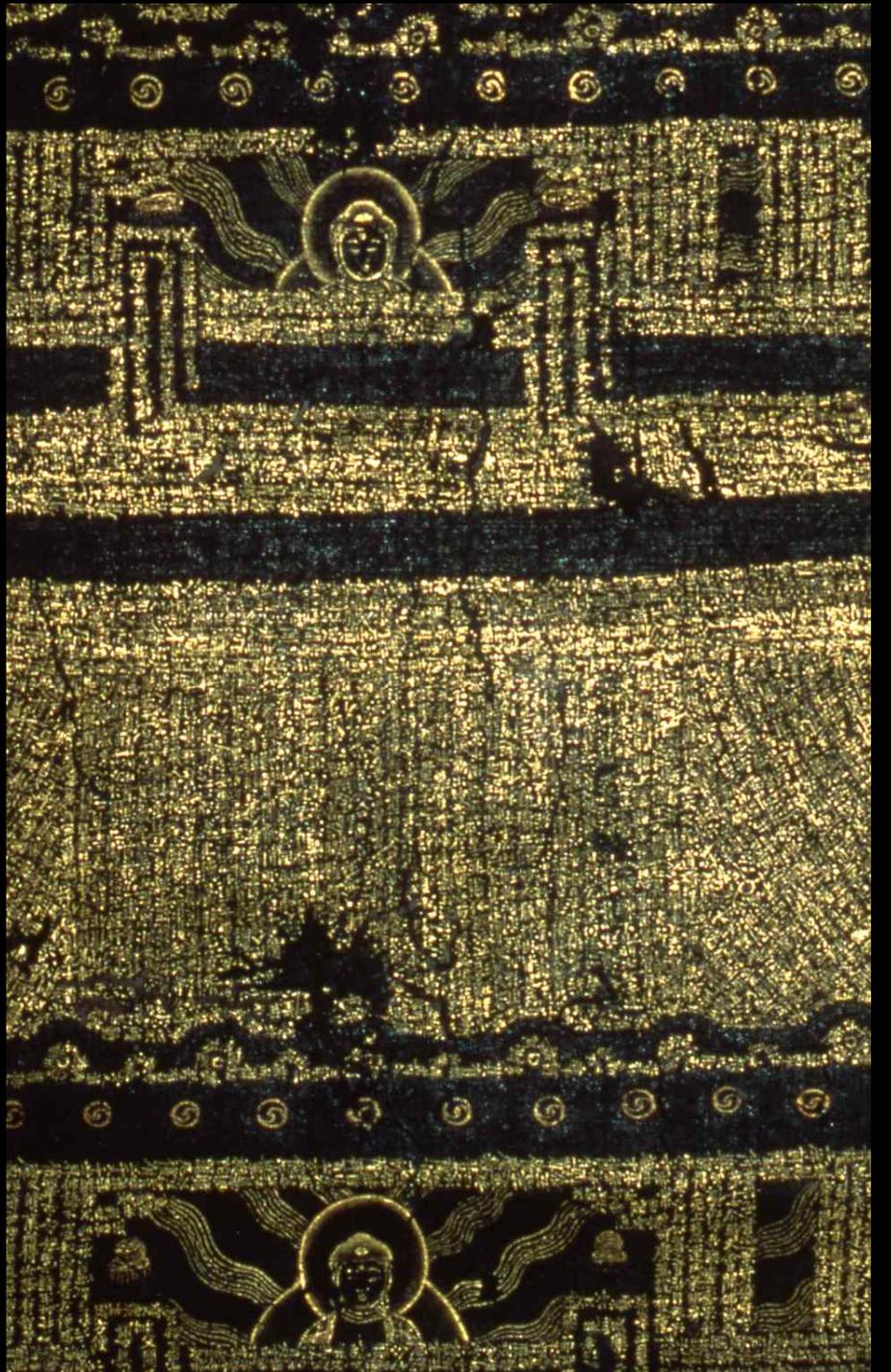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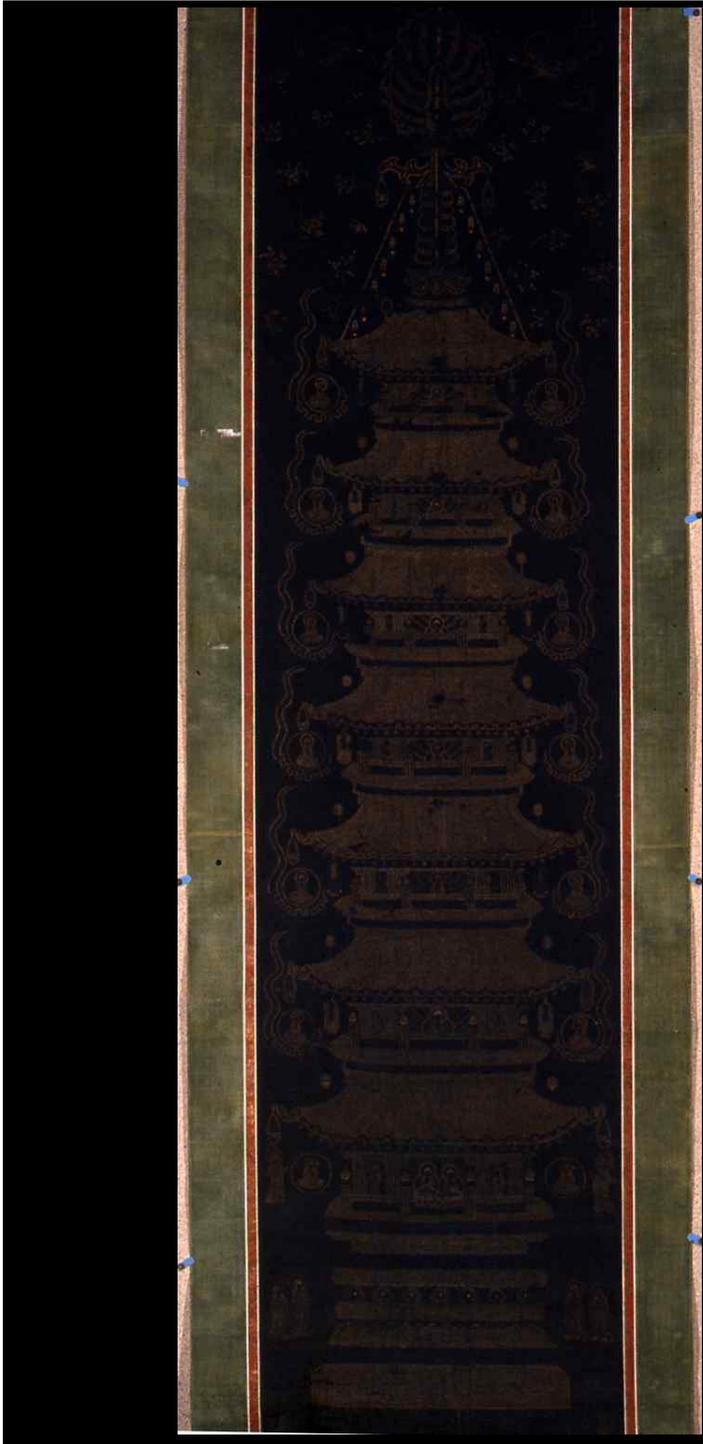




경주 도함산 석굴암 천정



수월관음도, 고려



보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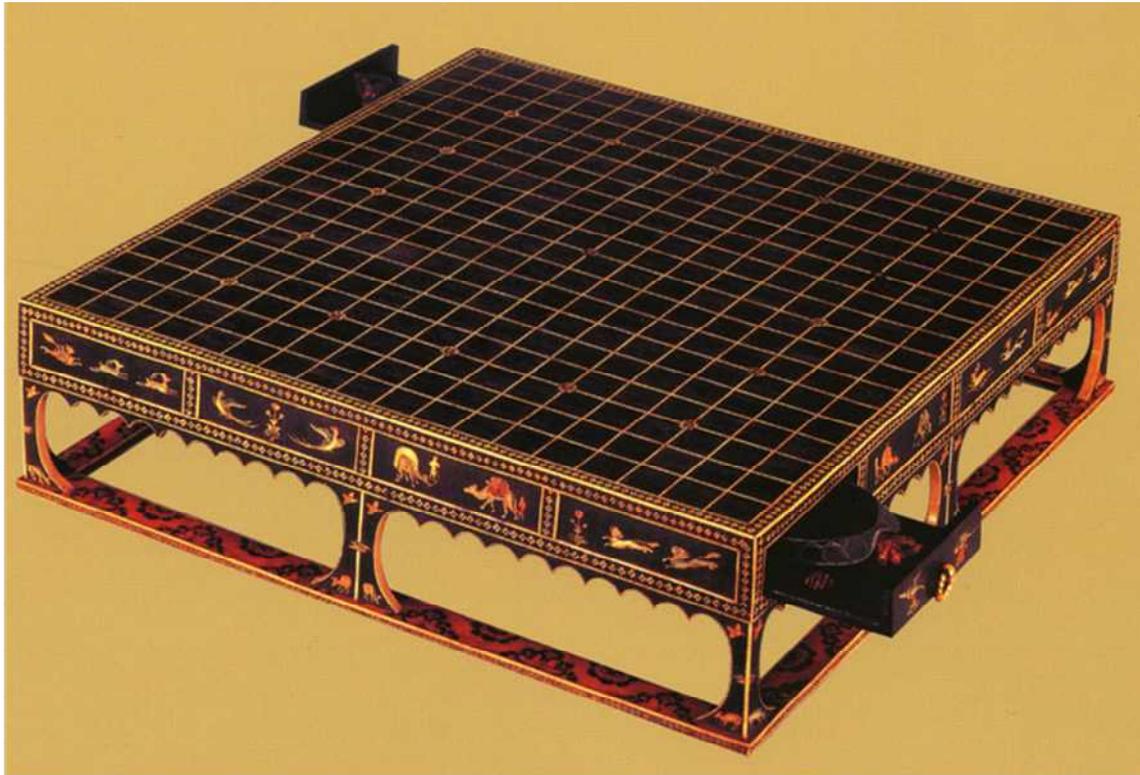
보탑도 세부

6. 신기(神技)에 가까운 작품들

- 청나라 공예가의 감람(甘藍)핵 배조각
- 경덕왕의 만불산 조각 이야기
- 석굴암의 돔



진조장(陳祖章) , 청, 감람핵(올리브 열매)에 조각한 배



753년 바둑알

사리기
舍利內函
Sariquary

신라 682년경
경주 감은사 터 동삼층석탑
慶州 感恩寺址 東三層石塔
20.3
제1359호



감은사터 동삼층석탑 사리기, 높이 20.3cm, 보물 제 1359호

<삼국유사>의 <만불산(萬佛山)>조각 이야기

경덕왕이 당나라 황제가 불교를 숭상한다 함을 듣고 공장에게 명하여 만불산을 만들었다. 침단목을 조각하여 맑은 구슬(明珠), 아름다운 옥(美玉)과 함께 높이 한 장(丈;4.5m)이 넘는 가산(假山)을 만들어 오색전 위에 놓았다. 산에 험한 바위와 괴석과 동굴로 구역을 나누고 구역마다 가무기악(歌舞伎樂)과 열국산천(列國山川)의 형상이 있어 ... 얼핏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가운데는 일만(一萬)의 부처를 안치하였는데 큰 것은 사방 한 치가 넘고 작은 것은 그 머리가 콩 반쯤 되는 크기인데도 상투와 눈썹까지 선명하였다 ... 이로 인하여 만불산이라 일컬었다.

여기에 다시 금과 옥으로 꽃나무를 장엄하고 루각과 전각, 정자를 만들었는데 작기는 하나 모두 생생한 형상이었고 그 앞에는 천 여명의 종이 둘러싸여 있고, 아래에는 3개의 자금종(紫金鍾)을 종각에 걸어놓고 당(撞-종을 치는 토막)을 설치해 두었다. 바람이 불어 종이 울면 돌아다니는 종들이 다 옆드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은은히 염불하는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그 신묘한 실상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마침내 완성되어 사신을 보내 선물하였더니 당나라 황제가 탄복하면서 “신라 사람의 기교는 천조(天造)요 인교(人巧)는 아니다”하고 구광선(九光扇)을 그 바위 사이에 덧붙여 두고 그로 인하여 불광(佛光)이라 하였다.

7. 장인의 여유

- 고구려 벽화 수렵도의 에피소드
- 김홍도 서당
- 혜원의 연회도
- 고려청자 향로



사냥, 무용총, 고구려, 지린성 집안











思園
儒
常
題
中
任
不
空





청자 칠보 무늬 향로, 고려 12세기, 높이 15.3cm, 국보 제 95호

8. 기교를 뛰어넘은 무심의 경지

대교약졸(大巧若拙), 불계공졸(不計工拙)

- 추사의 잔서완석루

- 동몽선습

- 판전(板殿)

- 달항아리

- 조선다완



백자 달항아리, 조선시대, 17세기후반, 높이 45.0cm, 오사카 시립도자미술관

殘書頽石樓

中書為滿族

三才圖會

童蒙先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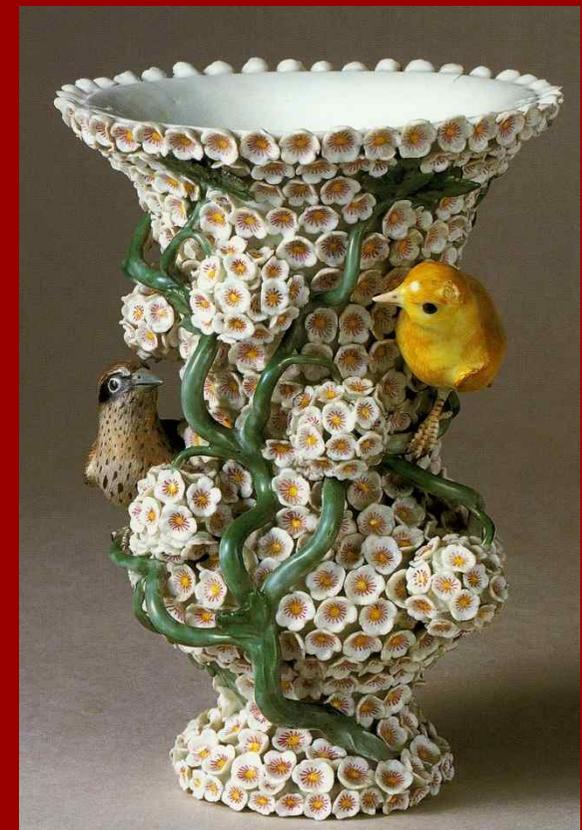
天地之間萬物之衆唯人最貴
所貴乎人者以其有五倫也是
故孟子曰父子有親君臣有義
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人而不知有五常則其違禽獸

추사체의 특질: 괴(怪)

근자에 들으니 졸서(拙書)가 세상 눈에 크게 괴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 글씨를 혹시 괴하다고 할뜬지나 앓을지 모르겠소. 요구해온 서체는 본시 처음부터 일정한 법칙이 없고 붓이 팔목을 따라 변하여 괴(怪)와 기(氣)가 섞여 나와서 이것이 금체(今體)인지 고체(古體)인지 나 역시 알지 못하며 보는 사람들이 비웃건 꾸지람하건 그것은 그들에게 달린 것이외다. 해명해서 조롱을 면할 수도 없거니와 괴(怪)하지 앓으면 글씨가 되지 앓는 걸 날더러 어떡하란 말인가요.(전집 권5, 어떤 이에게)

9. 장인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system

1. 프랑스 품질인증제도(Quality control) :
Limoger의 에나멜 공예, 프랑스의 wine
2. 일본의 장인정신 :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으면 그것은 神이라 한다.
데릴사위제도와 전승가문
3. 조선백자의 비극적 종말 :
 - 소비와 요구의 부족
 - 무명도공이 비; 사기장(沙器匠)에 대한 천민 대우



마이센 도자기, 독일 마이센



덴마크
로얄 코펜하겐





오직 한자리만 비추는 일을 국보로 여긴다



청화백자 연화문 향아리. 18세기 후반. 높이 44.3cm. 지름 34.5cm.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



경기도 광주 무명 도공의 비